

건강에 '진심' 검진에 '합심'

아비코테크(주)



글 박진완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충북 증평군에 위치한 아비코테크(주)(이하 아비코테크)는 1985년 설립되어 251 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인 중견기업으로, 반도체 부품 및 인쇄회로기판 생산 외길을 걸어온 회사다.

이 회사가 생산한 기판들은 자동차 전장용품, 산업용기기,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방대한 곳에 쓰이고 있다. 탄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춘 기업 아비코테크는 단지 제조에만 강한 기업이 아니다. 안전에 강한 기업이기도 하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이하 충북센터)가 꼽은 건강검진 활동 모범 사업장으로서 노동자 건강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철저한 안전·건강 제일주의

아비코테크의 안전·보건 관리는 교육에서부터 시작한다. 전 임직원을 상대로 월 1회 정기 교육을 실시하며,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에게도 안전에 대한 신규교육,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관리감독자 또한 연 1회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뿐만이 아니다. 아비코테크의 안전보건담당자 박일환 대리는 안전점검 활동을 특별히 자신했다. “월 1회 대표이사 주관으로 정기 특별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이고 세밀하게 점검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또한 아비코테크는 중평소방서와 연계하여 연 1회 합동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을 통해 약품 운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질서 있게 대처하고, 소방서의 화학처리반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관심에서 시작되는 꼼꼼한 건강검진

아비코테크의 사업장에서선 기관 제조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취급하고 다양한 약품과 화학물질이 공급되는 만큼 유해 요인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2008년부터 우리 협회 총복센터와 인연을 맺고 특수 건강검진을 진행해오고 있다.

아비코테크는 ‘정직하게 원리원칙을 지키며 검진을 진행하는 것’ 이것이 곧 직원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안전보건에 대한 단단한 의지와 직원들에 대한 세밀한 관심으로 검진을 꼼꼼하게 진행한다. 박일환 대리는 건강검진이 진행되는 날이면 전체 검진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고 검진 현장을 지킨다. 작업자들의 근무 장소와 형태, 특성, 다루는 물질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된 특수건강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자칫 놓칠 수도 있는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주기 때문에 검진의 효율과 정확도도 매우 높다.

그래서 아비코테크와 총복센터의 파트너십은 매우 탄탄하다. 건강검진 협업을 실시한 이래, 철저한 준비성과 협조, 그리고 건강에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바탕으로 쌓아온 시너지다. 총복센터의 건강진단팀 김윤섭 선임과장은 “아비코테크는 항상 정도대로 진행하고 사후 관리도 확실하다.”며 아비코테크를 총복뿐만 아닌 전국적인 안전·건강 관리의 모범 사업장으로 꼽는 이유를 설명한다. 노동자의 건강은 곧 기업의 힘이다. 건강한 임직원이 질 좋은 제품과 건강한 일터를 만든다고 회사는 믿는다. 아비코테크가 건강에 ‘진심’인 이유다. 🍀

- 1 아비코테크(주)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현장 점검에 앞서 늘 꼼꼼하게 준비사항을 체크한다.
- 2 정기 특별안전점검을 준비하는 안전보건 담당자들
- 3 중평소방서와 연계해 연 1회 실시하는 합동비상대피훈련 모습
- 4 총복센터와 함께하는 정기 건강검진

